

교회공동체의 치유설교를 위한 심리학적 성경해석의 가능성과 전망: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김 미 경*

국문초록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최근에 극대화된 기독교에 대한 교회 밖의 다각적이고 맹렬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지금까지의 성장주의의 뒷전에 부차적 사안으로 밀려난 교회 본연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안팎으로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한 일환으로 치유설교를 통해 목회돌봄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유적인 설교의 방향과 가능성을 대상관계이론 관점에서 몇 가지로 논의하였다. 현대정신분석인 대상관계이론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의 병리현상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교회는 회중에게 위로와 격려, 인생의 재충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설교를 통해 상처 입은 자아들이 치유될 수 있는 중간대상이 되어주어야 한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되, 현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회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설교가 회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와 심리 상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가능성을 코헷의 자기심리학과 다양한 대상관계이론의 심리학적 통찰에서 성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중심단어: 교회, 치유설교, 대상관계이론, 자기대상, 중간대상

• 논문 투고일: 2014년 10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11월 25일

*한영신학대학교

I. 여는 글

오늘날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은 교회의 주일 공적인 예배에서 설교를 듣게 된다.¹⁾ 회중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으므로²⁾ 이들은 내적, 외적으로 주어진 문제들을 설교를 통해 다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즉 각박한 현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설교를 통해 심리적 산소 공급을 갈망하게 된다. 이들은 설교를 통해 반응해주는 대상을 만나기를 염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고통이 완화됨으로써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므로 이들의 내면 혹은 영적인 요구를 목회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회중(congregation)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상처 받은 사람들로 모인 무리들로 설교를 통해 항상 설교자와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목회적 돌봄을 위해 사용되었던 교회의 전통적 자원의 하나인 설교를 통해 오늘날 어떻게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동시에 또한 부차적으로 이 과정에서 성도들에

1) 교회에서 설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Dargan은 그의 책에서 “설교란 기독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두드러진 하나님의 특성이자”라고 역설했다. E.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4), 22; 윤익세, “목사의 설교 준비와 선포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개혁신주의교회성장학회, 『개혁신주의교회성장』5호(2010): 3에서 재인용.

2)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중’이란 단어는 ‘교회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Kendal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인격을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인간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를 잇는 가장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설교라는 것이다. 그는 성령에 의해 이끌어지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의 삶을 만져 주는 설교를 강조한다. R. T. Kendal, *Worshipping God*, 김성원 역, 『예배에 숨겨진 비밀』(서울: 예수전도단, 2005)에서 재인용

대한 돌봄이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설교라는 자원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오늘 상황에서 심리학적 통찰력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설교를 통해 목회적 돌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대정신분석인 대상관계이론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의 병리현상에 대해 기독교적인 관점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즉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인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며, 즉 인간의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이다.

지면과 필자의 역량을 감안하여, 이 소고에서는 치유적인 설교가 되기 위한 중심내용을 대상관계이론 관점에서 몇 가지로 논의를 하되, 대상관계이론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비판하여 기독교의 체계에 담아내는 작업은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남기고자 한다.⁴⁾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의 대상관계 경험을 통해 하나님 표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하나님의 실재가 아닌 하나님 표상을 경배한다는 결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대상관계이론이나 그 어떤 사회과학의 입장도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어렵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도의 일반적인 한계이다.

4) 윤리학자이면서 실천/목회신학자인 Don Browning(1987)에 의하면, 현대심리학 중에서 Kohut의 자기심리학은 기독교의 사상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기희생적인 사랑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코헛은 Rogers를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적 접근처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사랑을 허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 같은 희생적인 사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인숙 · 이지영 · 유희주 · 최은영, "Kohut의 자기심리학과 Hoekema의 인간이해",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 23권 1호(2012): 86.

II. 펴는 글

1. 교회, 설교, 그리고 치유설교

1) 교회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최근에 극대화된 기독교에 대한 교회 밖의 다각적이고 맹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교회는 지금까지의 성장주의의 뒷전에 부차적 사안으로 밀려난 교회 본연의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안팎으로 듣고 있는 현황이다.⁵⁾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한 일환으로 설교를 통해 목회돌봄이 주어져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관찰과 이해, 혼란스러움 등에 대하여 관찰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공간(potential space)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안전한 구조의 지속(maintenance of the safe frame)⁶⁾을 담당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교회는 위로와 격려, 인생의 재충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⁷⁾ 설교를 통해 상처 입은 자아들이 치유될 수 있는 중간대상이 되어주어야 한다. 회중은 대인관계의 상처와 좌절로 인하여 대상의 향상성 경험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

5) 김순환, “한국교회 예배의 현주소와 그 발전적 미래 모색”,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3권 (2012): 28.

6) 안전한 구조의 지속이란 위니캣의 안아주는 환경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A. J. Horner,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rapy* (Lanham, MD.: Jason Arosen Inc., 1993); 안이환, “대상관계이론과 상담 실제”,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집」 제32권 2호(2000): 57에서 재인용.

7) 인생은 크고 작은 위기의 연속이다. 생애 주기는 성인기로 진행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 및 영적인 측면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노화에 따른 정신적 불안정, 우울증, 허탈감을 호소하는 회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김미경, “노년기 영성회복을 위한 성경적 모델: 모세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75-76.

들에게 교회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항상성 경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안아주고 버텨줌으로써 이들의 내적대상이 수정되어 참자기(true self)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설교

설교학(Homiletics)은 헬라어의 ‘호밀리아(σμιλία)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 ‘호밀리아’ 라는 말의 의미가 설교와 상담의 만남의 필요성을 강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헬라어의 ‘호밀리아’ 는 설교의 한 부류를 말하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회중들과 교회의 지도자가 함께 이야기하므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또한 호밀리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실제로 만남’ 을 의미한다. 이처럼 호밀리아는 만남, 대화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호밀리아’ 는 두 인격이 서로 만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에서 볼 때 설교와 상담은 이미 그 의미상 만남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⁸⁾

설교에서는 말씀 즉 메시지가 중요하다. 대개 설교의 내용은 구원의 메시지인 케리그마(kerygma: 복음)와 가르침의 메시지인 디다케(didache: 가르침)를 중심적 요소로 고려한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과 가르침을 어떻게 상대방과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설교자는 선포자나 교육자라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말씀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회중의 변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⁹⁾ 돌봄의 신학이 정립된 설교가 회중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면 이들은 하나님이 몸소 자신들의 고통을 함께 나눔을 경험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8) 김한성, “상담적 설교의 목회적 실용성”,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6권(2003): 90.

9) 이장연, 『청중분석과 설교』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8), 16.

이처럼 설교란 구체적인 상황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빛에서 해석하여 회중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적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형성하도록 돕는 선포와 돌봄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¹⁰⁾ 즉 회중의 안정과 돌봄이 설교에서 재조명되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회중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인식할 때 그들의 회복이 주어진다. 회중이 복음의 실존적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설교가 복음이 의미하는 세계를 회중의 보편적 삶의 이미지와 일상적 경험,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읽어내기 때문이다.¹¹⁾

설교신학자 David Butrick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목회자에게 위임된 예수그리스도의 설교의 연속이므로, 그리스도는 설교를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작업이라고 제안하였다.¹²⁾ 이처럼 설교¹³⁾는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존재가능성을 향해 결단하게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자신의 발견과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 설교는 본문과 삶의 조우를 경험케 해야 한다. 설교는 개인의 파편화된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개인의 이야기와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설교는 성경의 이야기가 미화된 영웅적인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실패하고 깨어지고 수치스럽고 의심과 두려움에 가득 찬 현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회중은 그들의 일상

10) 유영권, “목회상담적 설교”, 연세대학교신과대학, 「신학논단」 제29권(2001): 432.

11) 설교는 사실 현실성을 반영한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본문을 통해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또는 신임하고 있는 회중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12) David Bu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449-450.

13) 설교는 하나님이 회중에게 말씀하시는 하향적 은혜의 수단이다. 설교를 통해 회중은 그들의 신앙을 강화해 나갈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지적인 정보를 얻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오현철, “설교와 목회의 유기적 관계모델: 말씀목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1권 (2011): 160.

의 삶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

회중은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인 해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말씀으로부터의 해답을 기대한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인간 마음의 진단과 처방에만 치중한다면 좋은 설교는 아니다. 그러므로 회중의 삶을 관찰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의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들의 삶에 섬세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목회상담에서 중요시하는 시각조정이다. 이렇듯 설교를 통해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문제의 해결책과 나아가 심리적인 고통이 치유된다면 목회적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3) 치유설교

1957년에 Wayne E. Oates는 치료적인 설교(therapeutic preaching)¹⁴⁾의 중요성을 역설함으로써 목회자는 결코 그들이 지닌 상담과 심리학, 그리고 종교심리학이 설교자로서의 사역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¹⁵⁾ 이는 사회과학적인 통찰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 회중의 삶의 현장에 접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담적 설교¹⁶⁾가로 유명한 Harry E. Fosdick 목사도¹⁷⁾ “사실 모든 설교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과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심리적으로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의 문제 속으로 파고 들 수 있어야 한다”¹⁸⁾고 강

14) Wayne E. Oates, *The Christian Pasto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7), 67.

15) Wayne E. Oates, *The Revelation of God in Human Suffer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9.

16) 우리나라는 1991년에 김판풍이 합동신학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상담설교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17) Harry E. Fosdick 목사는 유니온신학교 실천신학 교수로 봉직(1915-46)했다. 1919년 교수직에 있으면서 뉴욕시 제일장로교회 설교목사로 있었으나 그의 자유주의적 경향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으며 그의 영향을 받은 이 교회는 초교파적인 리버사이드교회로 되었다.

18)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설교이론2』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6), 155에서 재인용.

조함으로써 설교에 있어서 치유적인 면을 중시했다. 오늘날 회중은 치열한 경쟁사회로 내몰리고 있어서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다. 회중의 현주소는 파편화된 자아, 심리적인 황폐함, 소외, 불안, 두려움, 외로움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현대는 회중의 문제와 심리적인 장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재조명되는 설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교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아울러 또 다른 편에서는 설교가 회중의 삶의 자리인 현실을 반영하여 성도들의 눈높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설교는 오늘날 회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물론 설교는 본질적으로 성경말씀을 근거로 해야 한다.

교회 상담 및 치료 사역의 성경적 근거는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담의 이념적, 실천적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상담이라는 용어는 20세기에 등장하였지만 심리적 불편감이나 아픔을 가진 자를 포함한 개인의 위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손길은 실천적 측면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하나님의 위로와 신학적 주제와 가르침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설교의 중심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설교를 통하여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의 죄책감을 씻으시고 그의 상처를 고치시게 해야 하는 것이다. 즉 말씀의 강단이 설교를 듣는 회중 전체의 공동체적인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되, 회중 개인의 내면적 변화만 아니라 신앙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²⁰⁾ 이런 맥락에서 김만풍은 상담설교란 삶의 현장에서

19)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 (서울: 요단, 1998), 59.

20) 오현철, “설교와 목회의 유기적 관계모델: 말씀목회”, 157.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상처를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역기능과 부적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라고 했다.²¹⁾ Donald E. Capps도 상담적 설교는 회중에게 구체적인 문제를 통하여 복음을 적용시키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²⁾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상담적 설교자라고 볼 수 있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로 가득차서 집단을 대상으로 설교(막 1:32)를 하시기도 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교(막 1:45)를 하시기도 하셨다.²³⁾

오늘날 급격히 변해 가는 사회 속에서 쉽게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먼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화된 산업사회, 병든 사회구조 속에서 각종의 가정 문제, 인간 소외문제로 상처입고 고난당하는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하여 목회상담에서 하듯이 이런 교인들의 심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더욱 효과적인 치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치유적, 돌봄적 설교는 구체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난 후 말씀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병든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의 뿌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말씀으로 대처하는 설교와 인간의 상처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리만 전하면 된다는 식의 설교는 치유효과에 있어서 명백히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95), 20.

22) Donald E. Capps,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A Quest for an Integrated Ministry*, 전요섭 역,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6), 18-20.

23)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126.

2. 대상관계이론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서술하는 심리학 이론으로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상²⁴⁾을 추구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개인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해준다.²⁵⁾ 이는 심리적인 삶의 중심으로서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대상²⁶⁾관계가 성인의 정신생활에도 계속 되어진다는 이론이다. 여기서 대상이란 단지 외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대상 뿐 아니라 내면세계의 타인, 즉 실제 인물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형성된 이미지나 표상(representation)²⁷⁾과도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즉 대상관계이론은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는 자아의 기능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면

24) 대상은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나 환경으로 전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 속에 살아 존재한다.

25) N. Gregory Hamilton, "A Critical Review of Object Relations Theory," in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ed. N. Gregory Hamilton(Northvale, NJ.: Jason Aronson, 1992), 1.

26) 현대 정신분석학에서의 대상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어느 특정한 시기의 대상을 말하지 않는다. Freud 이후의 정신분석가들은 대상을 관계와 연결되는 상대방 특히 영유아 시절에 양육자인 어머니 혹은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준 사람을 대상이라고 말한다. 대상(object)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평생을 통해서 함께 살아야 할 중요한 타자의 이미지가 대상이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성장 초기에 삶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 양육자로서 자기의 정신세계에 지울 수 없는 이미지로 각인된 사람으로 해석한다. 추정선, "대상관계이론에 입각한 상담적 관점에 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집」 제6권(2004): 440.

27) 표상이란 정신 안에서 재생산되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즉 외부세계에 대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미지로서, 주체가 이 세계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틀이다. 인간은 출생 시에는 정신적 표상을 갖지 않으나 경험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 자기와 비자기의 차이를 정신에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표상은 한 개인의 행동의 의미와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오오현, "대상관계이론의 목회상담적응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10): 195.

서 타자와의 관계 형성 및 심리적인 교류를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로 전제하고 있다. 타자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 이상이며 자기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말한다. 대상관계이론은 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마치 목회상담의 핵심인 관계성을 치유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이론은 자기를 발달시키는 핵심요인으로서 타자들과의 결합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을 가정하고 있다.²⁸⁾

대상관계 이론은 기존의 정신 분석이론에서 벗어나 자아경험과 발달의 기초를 ‘분리’ 나 ‘개별화’에서 ‘관계’로 초점을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그 결과, 대상관계 이론은 ‘관계 속의 자아’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발달과 성숙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Guntrip은 Fairbairn의 자아분열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수정 보완하여 아이가 엄마의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하면 퇴행하여 엄마의 자궁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이런 자아의 퇴행현상은 모든 정신병리의 핵심을 이루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엄마를 포기함으로써 인해 생기는 것으로 인간행동의 근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에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부모와의 실질적 관계에서 좌절하게 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하게 되는 자아의 퇴행, 즉 자아분열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3.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한 치유설교의 방향

필자는 다양한 대상관계이론가들과 Kohut의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에서 강조되는 관계현상들을 중심으로 상처와 고통에 처하

28) Robert B. Kosek, "The Contribution of Object Relations Theory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astoral Care* 50, no. 4(1996): 375.

여 병리를 경험하고 있는 회중을 치유하고 회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에 적용될 수 있는 측면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교회는 설교를 통해 자기대상인 하나님과 조우하도록 한다.

코헷의 이론²⁹⁾에서 자기대상(selfobject)은 자신의 일부와 같은 대상³⁰⁾을 칭하며, 건강한 자기애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즉 자기대상³¹⁾ 개념은 개체가 타인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체험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반영해주고 또한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만 자기 자신을 응집력 있는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데, 자기³²⁾의 조화, 힘, 그리고 응집을 지지해 주는 대상이 바로 자기대상이다. 코헷은 성장한 자기가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기능을 지금 대신 제공해주는 대상이자, 자기의 부분으로 경험되는 이러한 대상들을 자기대상으로 이름 붙였다. 그 대상들은 심리적 기능으로 존재하며 현실적으로 독립된 대상으로서 경험되지 않는다.³³⁾

29) 코헷의 자기심리학은 대상관계이론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심리학과 대상관계이론을 구별 짓는 부분은 자기에 대한 이해이다. 대상관계이론은 대상을 내재화한 이상적인 인간의 경우 더는 대상이 필요 없다는 이론적 맹점을 지닌 것에 반하여, 자기심리학은 인간에게 평생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해냈다. 최의현, “Kohut의 자기이해-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과의 연계성”,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권(2001): 110-114.

30) 만약 대상을 상실했을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성장한 후에도 대상이 상실되며, 또 대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된다. 관리하는 정신적인 지주이며 정신적인 영양을 공급할 때 이를 대상이라고 한다.

31) 자기대상은 주로 부모 중 한 명을 말하는데, 유아에게 거울 반응(mirroring response)이나 안아주기(holding), 수용(acceptance)과 같이 유아의 공감의 필요를 시기적절(phase-appropriate)하게 채워주는 대상이다. 김 준, “Heinz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19.

32) 코헷은 자기(self)란 자국을 주고받는 주체로서 하나의 응집된 단위이며, 자기대상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Heinz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99.

33) A. M. Siegel,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헷과 자기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117.

코헛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세 가지의 자기대상 기능, 즉 반영적 자기대상(mirroring selfobject), 이상화 자기대상(idealized selfobject), 그리고 쌍둥이 자기대상(twinship/ alter-ego selfobject) 기능을 경험해야 건강하고 성숙한 자기를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영적 자기대상 기능은 영아인 자녀가 자신의 활기와 위대함, 그리고 완벽함에 대한 내적 감각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고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고 찬사해주는 것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숙한 형태의 긍정적인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성숙한 형태의 찬사와 공감을 보일 수 있는 건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구축하게 된다.

이상화 자기대상 기능은 아동인 자녀가 조금 더 성장하면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자신이 평온하고 절대적이며 완벽하고 전능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강력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상한 안내자와 모델로부터 응답을 경험하는 것인데, 자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기 안에 이상화된 가치와 삶의 목표들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쌍둥이 자기대상 기능은 아동이 현실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현실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고,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같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기가 보다 강화되고,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능과 기술을 계발해 나간다. 코헛은 우리 인간은 이러한 자기대상 경험을 통해 안정된 응집적 자기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생애 초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서 자기대상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자기대상 욕구의 적절한 충족과 좌절의 경험은 건강한 목표나 이상의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인생에서 위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삶의 전환기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으로써 자기대상 욕구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항상적인 자기대상은 없으므로³⁴⁾ 지속적인 공감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해 외상적인 좌절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자기대상 경험을 상실함으로써 파편화된 자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는 삶의 큰 전환기로 강한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심리적 괴로움을 조절하기 위해 초월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개인은 그동안 자신에게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었던 자기대상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완벽한 자기대상의 실체를 갈망하며 추구하게 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기대상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자기구조의 결함을 매우며 긴장과 불안이 조절되어 응집력있는 자기가 공고화될 수 있다.

그러나 코헛은 적절한 자기대상의 경험이 응집적 자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임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자기 역할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전적으로 인간의 자기대상이 친히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불변의 자기대상이 되어주신 것을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회중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코헛은 자기(self)를 하나의 응집적 단위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세계의 중심'으로 보았다.³⁵⁾ 코헛은 자기대상을 자기가 자기의 일부처럼 경험하는 대상으로 정의하는데, 생애 초기에 부모가 아이의 자기대상 필요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히 반응해 줌으로써 아이에게 자기대상(selfobject)으로 잘 기능할 때, 아이의 자기는 견고하고 건강하게 됨으로써 아이의 응집적 자기³⁶⁾는 잘 발달하게 된다. 코헛은 공감적 자기

34) 현실에서 자기대상의 공감적 반응의 실패의 경험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감적 반응은 일생동안 필수적이다.

35) Kohut, *The Restoration of the Self*, 99.

36) 자기응집성(self-cohesion)의 결여, 즉 자기 파편화(self-fragmentation)는 자기발달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대상은 생애 초기뿐만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응집적 자기의 구조가 한 번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헛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로 하는 자기대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통해 결국, 설교자는 회중들의 자기대상이 되어야 한다. 회중이 신뢰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되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대상경험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그림자에 불과한 불완전한 자기대상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자기대상의 관계이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자기대상의 기능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 필자는 코헛의 자기대상 개념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코헛의 자기대상은 전조 혹은 그림자³⁷⁾에 불과할 뿐이며 하나님만이 자기대상의 실재라고 강조하고 싶다. 단지 인간이 불완전해서 완전하게 돌보시고 반영해주는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할 수가 없을 뿐이다.

2) 설교자가 회중의 아픔을 담아주는 좋은 대상이 되어준다.

현대인들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어 정서적 상실과 공허감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 정서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된다. 외부세계와의 장벽을 세우게 되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입장을 잘 대변해주

37) 필자가 사용하는 '자기대상의 그림자' 라는 표현은 진정한 '자기대상의 실재' 혹은 '궁극적 자기대상' 과 구별하기 위해 언급한 용어일 뿐이다. 프로이트가 설명한 대상의 그림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프로이트는 우울증의 심리역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상실 이후 애도과정과 그에 따른 자신에 대한 질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The shadow of object fell on the ego' (상실된 대상은 우리의 자아 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즉 자아가 상실한 대상과 동일시함으로써 우울한 정서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대상의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내적 대상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 있는 이론가가 페어베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리비도³⁸⁾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대상을 추구한다³⁹⁾고 주장하면서 프로이트의 욕동이론을 비판했다.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타자들과 접촉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타자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페어베언은 치료란 타자들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페어베언이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를 대상 추구로 봄으로써 프로이트가 중시했던 쾌락의 위상도 달라진다. 페어베언에게 있어서 쾌락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대상에게로 가는 길을 지시해주는 표지 역할'로 간주된다.⁴⁰⁾ 고전적 욕동이론에서 대상은 긴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충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었다. 즉 본능적 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있다.

페어베언에 의하면 리비도는 처음부터 대상을 향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자아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⁴¹⁾ 이런 페어베언의 입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페어베언에게 있어서 대상은 일차적으로 자연적인 대상 즉 현실 속의 사람들이다. 욕동이론에 비추어 하나님 대상은 신앙의 미성숙한 단계를 보여준다. 필요를 채워주고 긴장을 감소시켜 주는 대상이지만 페어베언의 대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의 입장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38) 페어베언에게 있어서 리비도란 특정한 에너지나 관능성의 형태라기 보다는 인간 경험의 일반적인 특징, 타자를 지향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9) S. Cashdan, *Object Relations Therapy*, 이영희 외 역, 『대상관계치료』 (서울: 학지사, 2005), 29.

40) W. R. D. Fairbairn,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이재훈 역,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46.

41) J. R. Greenberg & S. A.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254.

있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욕동의 만족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확장해석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어베언의 분열성 인격에 대한 설명은 회중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고 있다. 분열성 인격은 자아가 약해서 모든 대상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대상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거나 대상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페어베언은 개인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외톨이가 되면 분열성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현실 세계 안에 있는 대상들에게 리비도를 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대상은 상실된다.⁴²⁾ 대상 상실의 경험은 자아를 무기력한 상태로 빠뜨려서 결국 자아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됨으로써 분열적 상태의 특징적 정서인 허망감을 보여주는 자아의 분열이 일어난다. 페어베언에게 있어서 인간의 모든 병리는 억압된 나쁜 대상에 대한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현실의 부모가 나쁜 대상일 경우,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고통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환자는 분석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나쁜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 유형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⁴³⁾ 회중은 목회자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건강한 관계 유형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회중은 목회자가 안내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다.

이처럼 페어베언의 정신분석적 개념들과 이해는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회중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적 전망을 제공해준다. 페어베언에 의하면 자아는 원래부터 온전한 정신적 자기이며, 출생 이후의 대

42) Fairbairn,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65.

43) 오채근, 『비교정신분석학』(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113-114.

상관계 경험을 통해 구조적 유형으로 분화해가는 하나의 전체로 본다. 그러나 자아의 심리적 파편화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완벽한 대상은 현실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페어베언은 자아가 어떻게 원래부터 온전한 정신적 자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페어베언의 대상관계이론에서 자아개념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함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원래 자신의 형상(Imago Dei)대로 인간을 지으셨다.⁴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부터 온전한 정신적 자기라는 페어베언의 입장에 근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원형적으로 당신과의 관계를 지향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대상을 추구하는 자아는 궁극적 대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필연적으로 지니게 된다. 페어베언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는 원래부터 온전한 정신적 자기이지만 타자와 관계를 맺는 현실에서는 불가피하게 자기 통합성의 상실에 대한 분열성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분열성 불안은 유아로 하여금 이 세상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페어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아분열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간은 자신의 세속적인 본성이나 정서적인 욕구를 타인에게 투사하면서 자신은 극도로 결코 상처입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려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페어베언은 인간의 마음은 일차적으로 관계성에 굶주려 있다고 말한

44) Calvin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는 탁월함의 근거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로 보았다. 최인선,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인간학”(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12.

다.⁴⁵⁾ 그러므로 나쁜 대상일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대상을 갖기 전에는 그 나쁜 대상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교를 통해 설교자가 좋은 대상이 되어줄 때 비로소 나쁜 대상을 직면할 힘이 생기고 마침내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⁴⁶⁾

3) 교회는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⁴⁷⁾을 제공하여 회중의 내적 상태를 공감해주고 적절하게 반응해준다.

교회 회중들의 일부는 얼핏 보아서는 현실에서 성공하고 부유하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을 Winnicott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잠재력과 창조성은 포기한 채 그저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감으로써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주하여왔던 것이 별로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가짜라는 느낌에 시달림으로써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이른바 위니캣이 말하는 거짓자기(false self)⁴⁸⁾ 인격으로 그저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존재의 중심과 깊이로부터 도피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아는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 위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애쓰게 된다. 이들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통해 깨지고 파편화된 참자기(true self)를 복원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45) W. R. D. Fairbairn, "Endopsychic Structure Considered in Terms of Object-Relationship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5(1944): 70-93; W. R. D. Fairbairn,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2), 84을 참조.

46) F. Summers,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sychopathology*, 이재훈 역,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71-73.

47) 위니캣은 치료시에 안아주는 환경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지적 환경을 Margaret Little(1990)은 촉진적 환경(facilitating environment)이라고 하였다. 안이환, "대상관계이론과 상담 실제", 57에서 재인용.

48) 거짓된 자기는 주로 외부현실에 대한 적응과 관계한다.

는 회중에게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위니콧은 중간대상이란 내부대상이나 주관적 대상이 아니면서, 단순히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한다. 이것은 외부대상과 내부 대상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마치 유아는 엄마라는 실재대상이 없이도 곰 인형, 담요, 이불 옆에 있을 심리적 안정을 가지며 위안을 얻어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회중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애착관계나 강한 정서를 느끼게 됨으로써 어려움과 우울로부터 위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주체(subject)로서 대상(object)인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관계경험은 인간의 자아기능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자기 가치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정된 정체감의 근원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넘치도록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하시지만 인간은 거부하고 망각하면서 살다가 세파에 다치게 되어 낮은 자존감과 허약한 자아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위니콧은 인간 유기체의 발달을 위해 ‘촉진적 환경’을 강조한다. 충분히 좋은 환경이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역으로 발달이 방해를 받으면 정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정서 상태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안아주는 환경⁴⁹⁾이란 의존 상태의 유아에게 필요한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성적 기능을 뜻한다. 안아주는 환경의 제공은 비단 유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⁵⁰⁾ 성인도 상처 입은 정서 상태를 안아주고 자아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이

49) 여기서 안아주는 환경이란 유아를 단순히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심과 돌봄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50) Mahler는 어머니가 유아를 안아주는 것을 좀 더 중요한 “심리적 탄생의 공생적 조직자(symbiotic organizers)”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M. S. Mahler, Fred Pine & Anni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1975), 49에서 재인용.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지지적 환경, 버터주는 환경,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제공함으로써 회중의 욕구와 내적상태를 공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회중이 하나님의 자녀로써 가치롭게 여겨지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닫는 글

현대는 교회의 갱신과 전통적인 언어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설교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설교란 교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가 교회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⁵¹⁾ 설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회중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심리적인 불편감을 호소하는 회중이 많아짐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상담적인 설교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설교자는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회중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의 삶과 괴리된 설교가 아니라 회중의 실제적인 고충이 설교에 적용됨으로써 위로와 회복이 주어져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설교사역은 교회의 회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회중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설교사역의 역할이 크다. 이를 위해 회중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를 현대정신분석이라 할 수 있는 대상관계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내담자의 종교적 성향과 종교적 자원을 치료에서 다루어주는 것은 치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들이 되는데,⁵²⁾ 대상관계이론의 심리학적 통찰은 설교의 신학적 관

51) 신성중,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3), 332.

52) P. S. Richard, & A. E. Bergin,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 C.: APA, 1997)에서 재인용.

점에서 성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재해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프로이트의 종교 개념에 도전함으로써 종교는 더 이상 신경증적이고 유아적인 성격의 현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유설교는 대상에 대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의 궁극적이며 전체 대상인 하나님과 조우하여 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증오를 통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다. 교회공동체인 회중은 손상되기 쉬운 자기(damage-prone self)일지라도 설교를 통해 불안에 대한 자아의 내성 능력이 배양되어 자신의 공격성의 일부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회중은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과 그들의 입장에서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로 통합된 전체 대상의 이미지로 형성해 낼 수 있게 된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대상이 부분 대상에서 전체대상으로 바뀌면서, 회중은 대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지니게 되어 잘못된 분열기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설교는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는 회중에게 위안과 피난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좋은 대상관계를 되찾도록 해 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회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한 통치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이고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⁵³⁾ 그동안 경험해왔던 자기대상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자기대상의 실체와 조우하게 된다. 그동안 회중이 자기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은 자기대상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상관계이론은 ‘관계의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치유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대상관계이론에서 취급되어지는 개념들은 다소 추상적이다. 교회 현장은 치유설교를 위해 개념과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회중이 정서적 재

53) 안경승,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 (2012): 209

충전(emotional refueling)을 갖도록 안전한 기지(secure base)로서의 역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교회는 회중의 삶을 품어주고(containing),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이기에 자기대상은 여전히 필요하다. 여전히 걸어가야 할 인생이므로 자기대상은 필요한 것이다. 모쪼록 역부족인 본 고가 다락에서 먼지로 뒤덮여 있을 교회와 설교의 본질이 회복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의 변영의 신학에서 탈피하여 교회회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위로와 돌봄의 신학으로 관심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만풍.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95.
- 김미경. “노년기 영성회복을 위한 성경적 모델: 모세와 갈렘을 중심으로”.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74-99.
- 김순환. “한국교회 예배의 현주소와 그 발전적 미래 모색”.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3권(2012): 27-54.
- 김 준. “Heinz Kohut의 인간이해와 기독교상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20권(2013): 9-35.
- 김한성. “상담적 설교의 목회적 실용성”.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복음과 실천신학』 제6권(2003): 87-109.
-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 서울: 요단. 1998.
- 신성중.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3.
- 안경승.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188-216.
- 안이환. “대상관계이론과 상담 실제”.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집』 제32권 2호 (2000): 47-59.
- 안인숙 · 이지영 · 유희주 · 최은영. “Kohut의 자기심리학과 Hoekema의 인간이해”.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3권 1호(2012): 85-106.
- 오오현. “대상관계이론의 목회상담적응에 관한 소고”.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1권(2010): 187-226.
- 오채근. 『비교정신분석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 오현철. “설교와 목회의 유기적 관계모델: 말씀목회”.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제61권(2011): 157-179.
- 유영권. “목회상담적 설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논단』 제29권 (2001): 431-450.
- 윤익세. “목사의 설교 준비와 선포가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 『개혁주의교회성장』 5호(2010): 1-34.
- 이장연. 『청중분석과 설교』.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8.

-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 정태기. “상담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두란노 목회자료 큰 백과 설교이론2』. 서울: 두란노출판사, 1996.
- 최의현. “Kohut의 자기이해-자아심리학과 대상관계 이론과의 연계성”.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권(2001): 105-126.
- 최인선.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인간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 추정선. “대상관계이론에 입각한 상담적 관점에 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집』 제6권(2004): 437-451.
- Browning, D. S. *Religious Thought and the Modern Psychologies*.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87.
- Butrick, D.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Cashdan, S. *Object Relations Therapy*. 이영희 외 역. 『대상관계치료』. 서울: 학지사, 2005.
- Capps, D. E.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A Quest for an Integrated Ministry*. 전요섭 역.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솔로몬, 1996.
- Dargan, E. C. *A History of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4.
- Fairbairn, W. R. D.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이재훈 역.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Greenberg, J. R. & S. A.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 Hamilton, N. G. “A Critical Review of Object Relations Theory.” In *Self and Others: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Ed. N. Gregory Hamilton. Northvale, NJ.: Jason Aronson, 1992.
- Horner, A. J.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rapy*. Lanham, MD.: Jason Aronson Inc., 1993.
- Kendal, R. T. *Worshipping God*. 김성원 역. 『예배에 숨겨진 비밀』. 예수전도단, 2005.

- Kohut, H.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7.
- Kosek, R. B. "The Contribution of Object Relations Theory in Pastoral Counseling." *Journal of Pastoral Care* 50 no. 4(1996): 371-381.
- Mahler, M. S., F. Pine & A.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1975.
- Oates, W. E. *The Christian Pasto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7.
- Oates, W. E. *The Revelation of God in Human Suffering*.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4.
- Richard, P. S. & A. E. Bergin.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 C.: APA, 1997.
- Siegel, A. M.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헛과 자기심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 Summers, F.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sychopathology*. 이재훈 역.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 Abstract 】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Bible Interpretation for Healing
Sermon for by Church Community and Its Prospects:
Focusing on Object Relations Theory**

Mi Kyung Kim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In the meantime, Korean churches have grown and developed but are facing multifaceted and fierce criticism outside the churches about Christianity maximized in recent years. Thus, churches are requested to recover the church's original identity laid aside as a secondary issue by Developmentism until now from inside and outside. Therefore, as part to recover the true nature of churches, pastoral care should be given through healing serm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directions and possibility of healing sermons in several ways in the context of the object relations theory. The object relations theory, a way of modern psychoanalysis, is capable of shedding a light on a relation between humans and the God, and furthermore shares the perspectives and contexts with the Christianity regarding the human pathology. It is necessary that churches provide consolation, encouragement and an opportunity to refuel life to the congregation and heal selves through a sermon as a transitional object. Sermons, based upon the Bible, need to deal with more realistic problems that can gain the sympathy from the congregation living hard lives in the modern times. In other words, an understanding of their lives and psychological status is required for the healing through sermons. This study proposed the important theological possibility that can bring therapeutic effects around the elements that can reflectively accept in psychological insight of Kohut's self psychology and various object relations theories.

Key words: church, healing sermon, object relations theory, selfobject, transitional object